

대학사의 주요 기록(중)

- 그 자료와 해설 -

이 광 주 인제대 명예교수

6. 하버드 대학의 창립

최근의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학자들이 행한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제1위는 하버드, 2위는 캠브리지-옥스퍼드, 3위 스탠퍼드, 4위 캘리포니아(버클리), 5위 MIT, 6위 예일, 7위 일본의 동대(東大), 8위 파리(소르본느), 9위 코넬, 10위 미시간, 프린스턴 대학으로 되어 있다. 이 대학 '베스트 텐'에 대해 사람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하버드의 순위(首位)는 요지부동, 아무도 이의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전신 하버드 칼리지는 아메리카의 독립 선언(1776)에 훨씬 앞서서 뉴잉글랜드 지방 상류계층의 여망에 따라 주 의회의 결의를 거쳐 1636년에 세워졌다. 그 창학 이념은 주 총회가 부여한 인가장(Charter)에 잘 명기되었다.

'이 나라의 영국계 및 인디언 청년에게 모든 훌륭한 문학·예술·과학의 현상과 지식 그리고 신앙을 가르친다.'

그리고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도록 대학 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학문을 성대히 해 후세에 전할 것이며, 무식한 성직자를 교회에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듯 지식과 신앙의 일치, 그 바람직한 조화를 통해 교양있는 '기독교의 신사'를 육성하는 것이 하버드의 창학 정신이요 목적이었다. 그 창립자들과 그들을 뒷받침한 뉴잉글랜드의 상류계층에는 특히 캠브리지 대학 출신자(약 1백 명, 옥스퍼드 출신자는 그 3분의 1)가 많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학을 세운 '뉴타운'의 지명을 '캠브리지'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식민지하에 세워진 모든 칼리지(지금의 컬럼비아 대학만을 예외로)와 마찬가지로 하버드도 또한 특정 종파의 학교였으며 청교도 특히 그 조합파의 대학이다. 다른 종파와는 달리 청교도, 그 중에서도 조합파는 특히 학문을 존중하여 식민지하에서도 그 목사의 95%가 영국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하버드나 뉴잉글랜드의 지적 풍토에 극히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다. 종파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나 하버드는 그 성립에서부터 일관하여 종파성에서 자유로웠으며 캠브리지를 본받아 자유학예의 교양교육, 인문주의적인 학풍을 중요시하였다.

“나의 장서와 나의 재산의 절반은 칼리지에, 나머지 절반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캠브리지 출신의 젊은 목사 존 하버드의 유언에 따라 서 기부된 780파운드와 320권의 장서를 기본 재산으로 탄생된 하버드 칼리지의 개교 때의 교사는 단 1인, 학생은 4인이었다. 그리고 초기 30년간 총 3백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의 대다수는 목사와 입법 기관의 고위직의 자제들이었다.

오늘날 하버드의 교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나 초창기의 교사들은 ‘튜터’로 불리우는 지도교사로서 대개가 20대 전반의 미혼남이었다. 학생과 더불어 학사(學舍) 즉, 칼리지에서 거주한 그들은 학식자도 전문직도 아니었으며 당시의 모든 교사들처럼 하버드의 교사들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본래의 바람은 목사이었으며 그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하버드를 떠났다. 단 2~3인의 ‘튜터’로써 교사를 충당한 상태는 1세기 이상 지속되고 하버드에 처음으로 ‘교수’가 나타난 것은 1722년에 이르러서였다. 3년 과정인 칼리지 초기의 교과목은 일반교양 과목과 3철학(자연학·물리학·형이상학) 및 고전이였다.

하버드는 종립(宗立) 학교요 성직자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으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옥스 - 브리지에 앞서서 이미 자유주의적인 학풍이 뿌리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누어진 신학상의 대립이 나타나고, 진보파에 밀린 보수파의 일부는 하버드를 떠나 뉴헤븐에 ‘교회와 정부의 공직을 맡을’ 인재 양성을 표방하여 예일 대학을 세웠으니(1701), 하버드와 나란히 명문 중의 명문인 예일은 원래 하버드의 자매교요 분신인 셈이다.

자유주의적인 개혁파의 승리는 하버드에 다양성의 원리를 도입하고 그 자유로운 학풍은 뉴잉글랜드의 지적 풍토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하버드는 미국이 퓨리탄의 시대로부터 계몽주의 시대로 전진하는 전환의

선두에 섰다.

이미 1673년에 제4대 학장인 옥크스는 하버드를 가리켜 “교회와 정치를 다스릴 …유능한 기관”으로 선명한 바, 하버드는 종파를 떠나 아메리카 최고 학부의 긍지를 갖게 된 것이다. 하버드의 18세기는 평신도인 존 레브레트의 총장 취임(1708)에서 비롯되었다. 16년에 걸친 그의 재임 기간은 아메리카 식민지가 평화와 번영을 누린 시대로서, 그 배경으로 하버드는 크게 발전하였다. 급격히 증가한 학생의 출신 성분은 신사계층을 중심으로 일반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종래 ‘예언자들의 자식들’로 불리웠던 학생들을 레브레트는 ‘하버드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젊은 신사 양성의 교육은 ‘사람됨’의 교양을 교회의 도그마만큼 중요시하고 학생들은 성서보다도 당시 영국 지식사회를 풍미한 문학적인 『스펙테이터』지(誌)를 애독하였다. 보수적 구세대는 학생들의 ‘난행’의 원인을 ‘극, 소설, 서퍽짜리 시’를 찾는 학생들의 취향에 찾았다. 그러나 그러한 시류 속에서 ‘사색하는 자유’의 이상은 보수 - 진보파를 가리지 않고 존중되었다. 이 ‘사색하는 자유’와 관련하여 레브레트 총장은 1711년에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철학적인 사항에 관해 하버드인은 시대에 발맞추어 건전하고 진보적으로 사색한다. 그들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논리학에서도 회의적이거나 독선적일 수 없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주저없이 철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유는 신학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위대한 총장’의 시대에 ‘하버드 대학의 자유주의적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목사는 “우리들의 이 작은 칼리지만큼 자유로운 공기를 자랑할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은 없다.”라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가 모델로 삼았던 옥스 - 브리지의 양 대학은 하버드를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접하였다.

하버드 출신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즈(1797~1801)가 젊었을 때 "보스턴의 자치 집회와 우리의 하버드 대학은 이제 바야흐로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언명한 것도 같은 무렵이었다. 그러나 칼리지의 교수들은 여전히 학구적인 전문직으로서 평가받지 못하였다.

하버드가 진실로 미국과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각광을 받게되는 것은, 낡은 칼리지의 튜터 제도에서 벗어나 베를린 대학에서 대표되는 독일 대학의 연구 방식을 도입, 명실 공히 '유니버시티'로 발전하는 커클랜드 총장 시대(1810~1828)에 이르러서이다. 하버드의 역사에, 아니 미국의 대학사에 신기원을 이루는 전문대학원 Law School 및 과학 전문대학원(지금의 Laurence Scientific School)의 신설(1847)은 바야흐로 학문과 과학 연구의 근거지로서의 '연구 종합대학'의 시대를 개막하여 이 점에서 '언제나 앞장 서는' 하버드는 선구적이었다.

전문대학원의 창설은 미국 학계에 새 지평을 활짝 열었다. 최초의 미국적인 지식인으로 일컬어지는 에머슨은 1837년 그의 모교 하버드에서 "미국적인 학자"라는 주제의 연설을 한 바, 그것은 유럽 학문과 대학으로부터의 미국의 학문과 대학의 해방을, 그 독립선언을 의미하였다.¹⁾

미국이 바야흐로 산업 사회에 진입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직 계층을 요구하는 사회 상황에 부응하여 하버드를 본받아 연이어 생겨난 여러 대학의 대학원은²⁾ 전문직의 판도를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다. 하버드에 국한하여 살펴 보면 1801~1857년에 걸쳐 졸업생 중의 31%가 법률가인 데 비해 목사는 15%였다. 이 수치는 꼭 1백 년 전 목사가 45%, 법률가가 5%였다는 수치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버드는 '유니버시티' 시대에 들어서 학문

연구와 엘리트 전문직을 배출하면서 이제 '공화국 속의 공화국, 교회를 초월한 교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선택된 계층의 대학'이 되었다.

오늘날 하버드는 명문 중의 명문, 세계 제1의 대학이다. 어느 대학사가는 훌륭한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라고 한 바, 무엇이 오늘의 하버드를 만들었을까. 미국의 부강, 그 민주주의 체제, 대학의 방대한 규모와 그 엄청난 재정적 풍요(하버드의 기본 재산은 1990년 현재 약 40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일이나 프린스턴의 거의 2배가 된다. 졸업생과 기업의 기부 금액이 1989~90학년도만도 2억 1천3백만 달러였다.), 대학의 잘 짜여진 관리체제 - 이 모든 것이 오늘의 하버드를 만드는 데 적지 않게 기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의 문리대학원 원장을 지낸 로소프스키 교수는 특히 미국 대학의 '경주'의 학풍과 더불어 학생 및 교수의 자질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하버드의 학생 수는 약 1만7천 명, 그 중 하버드맨으로 불리는 학부 학생은 약 6천5백 명, 외국인 유학생도 2천2백 명이나 되어 전체 학생의 12%를 넘는다.

그 엄밀하고 훌륭한 학생 선발은 고교 성적, 논문 테스트, 면접, 고교 추천서 그리고 '이상적인 학급 편성에 관한 대학의 다양한 배려'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하버드의 '(학생)선발 심사부'에는 언제나 25인 이상의 전문 심사원이 있고 그 연간 예산은 2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듯 하버드는 학생 교육이나 교수 선발만큼 학생 선발 문제를 거교적으로 중요시한다. '학부 즉 교양교육'이라는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명문 대학의 학생지도와 훈련. 그리고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 3위 1체를 이루고 비판적이며 독창성을 기르는 '담론' 중심의 학풍에 관해서는 이미 본지에서도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1) 고등교육의 미국적 특성은 프래그머티즘과 깊이 관련된 주립대학에서 잘 드러나는 바, MIT를 비롯한 주립대학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대학원'의 기원은 미국이다. 그것은 미국의 학부 과정이 유럽의 그것과는 달리 대체로 일반 교양 교육에 불과하여 학부 과정에 더하여 전문학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원이 요구되었던 까닭이다.

하버드의 학부 학생은 그가 대학원에서 전공을 무엇을 택하건 일반 교양과목을 학습한 뒤 다음의 세 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문장력이 있어야 한다. '교양인은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하므로.' ② 외국어 하나 이상에 능통해야 한다. '다른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③ 수량 이론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컴퓨터나 수량 데이터, 통계의 기초 기술을 지녀야 하므로.'

하버드에는 약 3천 명의 교수가 있으며 그 중 반수는 종신 재직권을 지닌 정교수이다. 교수의 대다수는 그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학자이다. 정교수의 평균 연령은 약 55세. 그러면 그들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전문직 양성의 전문대학원과는 달리 대체로 학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므로 대학원 중의 대학원인 문리 대학원의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990년도의 경우 약 7만 불. 미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금액은 법학 대학원을 갓 졸업한 풋내기 변호사의(그가 뉴욕의 사무소에 고용되었다면) 연봉과 비슷하다. 조교수(그들도 모두가 Ph.D 취득자이며 제1급의 뛰어난 학자임은 물론이다.)의 초연봉은 약 3만2천 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학문적인 권위와 사회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 박봉에도 하버드의 교수들은 만족하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수의 88%가 다시 태어나도 교수직을 택하리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의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매료하고 있는 것일까.

로소프스키는 그의 오랜 하버드 생활에 비추어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거목이 우거지고 잔디가 깔린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미국 대학의 건물 중에는 건축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 적지 않다!)이 둘러선 캠퍼스의 풍경을, 두 번째 매력으로는 읽고 싶은 서적을 조석으로 읽으면서 급여까지도 받는 대학 생활의 즐거움 '특권'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 매력보다도 과제인 연구에의 정열은 25%의 교수들이 들고 있다. 그 다음의 매력으로는 복종할 상

사 즉, 보스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하버드맨이 아니라도 이 명문의 역사를 뒤져 보면 우리들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수란? 하고 잠시 상념에 잠기게 된다. 나치스 아래에서 미국에 망명, 프린스턴 대학에서 생애를 마친 역사가 칸토로비치의 다음과 같은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

'가운을 입는 자격을 지닌 직업이 세 가지 있다. 재판관과 성직자와 학자이다. 가운은 입고 있는 사람의 성숙과 판단의 자율성과 자신의 양심과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7. 혁명 프랑스와 그랑-제콜의 출현

17세기 근대 과학의 성립은 때마침 태동된 법치(法治) 관료제 국가와 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갖가지의 전문직profession을 창출하였다. 이들 전문직은 신분 사회를 타파, 근대적 시민사회 형성의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서 부상하였다. 이러한 사회사적 전환은 필연적으로 고등교육과 학문의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켰으니 디드로가 지적한 바, '말의 연구에 대신한 사물의 연구에 대한 요구'가 범유럽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전문학 연구를 위한 베를린 대학의 창립(1810), 런던 대학의 출범(1836) 및 1789년 혁명을 계기로 나타난 프랑스의 그랑-제콜grands ecoles은, 성직과 교양을 위한 지난날의 고등교육 및 학문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구조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니 이제 대학의 최대 과제는 전문직의 양성을 위한 전문학의 학습 및 연구가 되었다. 고등교육의 변혁과 재편성은 혁명 프랑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의 세속화, 무상 공교육, 남녀 평등의 의무교육 등 유럽 최초의 국민 교육의 정착은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성과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재편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혁명 정부는 구체제의 모든 특권 기관과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와 대학을 앙시앵 레짐의 상징으로 적시하여 1793년 모든 대학을 폐교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신하여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제도의 새 편성을 주도한 인물은 수학자이며 철학자이기도 한 콩도르세와,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도누Daunou였다. 교육의 평등과 보편성을 중요시한 콩도르세의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은 종교성을 청산하고 고전어 대신에 사회과학 특히 자연학 및 응용 과학의 중시였다. 그리고 콩도르세는 학문 연구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국가 관리를 또한 강조하였다. 국민공회는 1792년 대학을 해체하고³⁾ 이공·공예·광업·동양 생활 언어·음악·미술 등 각종 특수 단과 전문학교 école spéciale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제 고등교육은 전문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수학과 응용과학을 중요시한 과학 지향의 전문학교는 고급 기술자, 고급 공무원 및 상급학교 교사(리세 및 대학의) 등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교 즉 그랑-제콜과, 갖가지 전문 공업 기술자를 위한 응용 기술학교로 크게 나누어진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초등학교(5년제)와 '콜레주'라고 불리우는 전기 중등학교(4년제)는 의무교육으로서, 그 뒤 희망에 따라서 3년제의 '리세 Lycee'라고 하는 일반 고교 혹은 기술 고교에 진학한다. 대학 지망생은 바칼로레아(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⁴⁾ 그 시험은 문학계(L), 경제-사회계(ES) 및 과학계(S)로 나누어지며 문학계는 선택과목인 현대어·고전어·예술·수학 중에서, 경제-사회계는 수학·경제학·사회학 중에서, 과학계는 수학·물리·화학·지학(地學)·공업 기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계열을 통틀어 철학은 필수이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전통적인 대학과, 엘리트들을 위한 그랑-제콜을 비롯한 각종 전문학교, 그리고 콜레주 드 프랑스로 크게 나누어지며 콜레주 드 프랑스는 최고급의 교수진을 갖춘 학문 연구를 위한 최고의 기관이다. 이제 그랑-제콜에 관해 생각해 보자.

바칼로레아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보통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그랑-제콜에 진학한다. 오늘날 그랑-제콜의 총수는 약 3백 개교, 그 재학생은 12만 5천 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일반 대학은 86개에 학생 수는 약 132만 명이다. 그랑-제콜은 고전과 문예의 바칼로레아를 선택한 문계의 소수 학생과 수학·공학을 선택한 이계의 많은 학생들로 구성되며, 고도의 공학은 모두 그랑-제콜에서 학습되고 연구된다.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학생은 물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나 우수한 학생들은 명문의 그랑-제콜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입학을 위해서는 리세 부속의 '준비 학급'에서 2~3년간 문과, 이과 및 상과로 나누어 입시준비에 정진해야 한다. 그런데 바칼로레아 합격자 중 그 시험 성적과 리세 재학중의 성적에 의해 11%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준비 학급'이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꿈꾸는 생도들과 학부모들의 제1의 관문이요 동용문이라고 할 것이다. 명문 그랑-제콜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서는 역대 왕의 비호를 받은 앙리 4세교(校)와 루이 르 그랑교(1563년 창립)와 같은 파리의 명문 리세의 준비 학급에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많은 그랑-제콜 중에서도 1794년에 세워진 고등사범 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와 이공대학Ecole

3) 1789년 이래 일반 대학의 문리학부는 문과 학부와 이과 학부로 분리되고 그것은 1870년까지는 진정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그 기능은 중등교육 기관인 리세 및 콜레주의 생도들에게 바칼로레아 시험을 행하고 그 교수들에게 시험뒤 자격 부여를 행하는 일이었다. 교수들은 강의를 하였다고 하나 청강생들은 학생이보다도 일반 청중이었다. 문학부 및 이학부가 전문 교육기관이 된 것은 1870년 이후로서 그와 관련하여 제학부의 집합체에 '대학'이라는 명칭이 몇 개의 연합된 학부의 호칭으로서 부활하는 것은 1896년에 이르러서이다.

4) 이 '대학입학 자격시험'이 제정된 것은 1808년 나폴레옹의 칙령에 의해서였다.

polytechnique이 쌍벽을 이루어 명문 중의 명문이다. 이밖에 사회과학계의 파리 정치학원(S.P.),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국립 행정학원(E.N.A.) 및 1881년에 세워진 고등상업전문학교(HEC.)도 유명하다. 국립 행정학원은 학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입학이 허용되며 2년제로서 수료자는 성적순으로 중앙 각 부처에 배치되어 행정 엘리트로서 보장받는다.

이공대학은 유럽에서도 제일 먼저 기술의 기초로서의 과학을 교육과정으로서 설정하는⁵⁾ 한편, 과학의 응용으로서의 기술을 체계화하여 근대 공학 창출의 요람으로서 독일의 공업 전문대학(T.H.) 및 미국 MIT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과 과학과 전문 기술자 집단의 창출에 또한 선구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이공대학에 이어 같은 해 1794년 국민공회의 결의에 따라 세워진 고등사범학교는 '파리에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이미 유익한 학문을 배운 시민을 공화국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아서 갖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교수 밑에서 교육하는 기술을 학습케 하는' 취지를 내세웠다. 혁명정부는 교육을 가톨릭 교회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육성함을 급선무로 여겼으며 수사학에 대신하여 과학과 백과전서적인 사고가 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고등사범학교의 2년 과정(1830년 이후 3년)의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에 제복을 입고 여름은 새벽 5시에, 겨울에는 6시에 기상하는 등 군대식의 규율을 따랐다. 학생들은 문계와 이계로 나누어졌으나 최초의 1학년은 그 구별 없이 공통의 강의를 받았다. 1830년 이후 제1학년 문과의 교과목은 문법, 그리스-로마의 인물사, 시론, 수사학, 고전문명론 및 철학이었으며 그 외에 수학·물리·자연과학의 강의도 약간 있었다. 나폴레옹의 몰락 뒤

백과전서적 학풍의 에콜 노르말은 위험한 사상의 이성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상의 격변기의 파랑은 때때로 에콜 노르말을 흔들었으나 에콜 폴리텍니크와 나란히 그 명성에는 하등 변함이 없었다. 최선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주요 기업 2백 개 회사 경영자의 27%가 에콜 폴리텍니크의, 그리고 23%가 국립 행정학원의 출신이다.

이 숫자는 영국 대기업의 옥스브리지 졸업생의 점유 비율인 32%를 훨씬 넘는다. 한편 프랑스 엘리트 지식인의 산실격인 에콜 노르말의 졸업생의 명부에서 우리들은 빅코르 쿠장, 역사가 미슐레, 로망 롤랑 (이상 세 사람은 모교의 교수를 지냈다.), 그리고 1924년 동기에는 수석을 다룬 사르트르와 니장 그리고 레이몽 알롱을 찾아볼 수 있다. 에콜 노르말은 1937년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이며 여류 사상가인 시몬느 베이유도 여기서 배웠다. 푸코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에서 4등의 성적으로 입학하였다. 사르트르는 에콜 노르말의 학창 시절을 생애 중의 '정말로 즐거웠던 나날'로서 회상하고 있다.

해마다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파리 상제리제 거리의 퍼레이드에서는 흑색 제복의 에콜 폴리텍니크의 학생단이 선두에서 행진한다. 그들이 앞세운 교기는 나폴레옹이 손수 부여한 것으로서 '조국·과학·영광'이라는 학교의 모토가 새겨져 있다. 푸코가 지적한 "지식은 권력이다."라는 진실이 혁명 프랑스에서도 통용된 것이다.

8. 칸트의 "학부의 싸움"(1798)

유럽 대학은 대체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4학부 즉, 철학부(학예학부), 신학부, 법학부 및

5) '과학자Scientist'란 말은 183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1840년경부터 쓰였다. 그 이전에는 'Men of science'란 말이 쓰였다. 그러나 켈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도 1851년에 이르러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에서 과학 연구는 전문 직업이 아니다. 그 연구자는 한 계층으로서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 전문직 계층의 태도는 개업의 시험을 관장한 왕립 의사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의 설립(1858) 및 변호사 면허의 특권을 지닌 법학협회The Inns of Coust가 발족한 19세기 후반에서 볼 수 있다.

의학부에 의해 구성되어 왔다. 교양 제 과목을 가르친 철학부(학예학부)가 기초 학부로서, 그것을 마친 뒤 학생들은 신학, 법학, 의학의 전문학을 교수하는 학부에 진학하였다. 그런데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추세에 따라서 즉,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신학부가, 16세기 절대주의 시대이후 법치국가이며 관료제도 중심의 근대 국가의 태동기인 18세기까지에는 전문적인 법률가 및 관료 집단을 양성하는 법학부가 대학의 중심 학부로서 우세하였다. 그러다가 '담론'에 의한 공공성(公共性)의 창출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인 시민사회는 '철학'의 시대의 도래를 초래한 바, 칸트의 유명한 논문 "학부의 싸움"(1798)은 철학부가 바로 대학의 중심 학부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베를린 대학은 훔볼트를 도와 그 설계에 깊이 관여한 슐라이마허가 '철학이 모든 학습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였듯이 바로 철학부 중심의 대학이요, 철학부의 우위는 "학부의 싸움"이 집필될 당시 독일 39개 대학의 교수 791명 중 274명(35%)이 철학부 교수였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에서 소개한 훔볼트의 대학관도 그 밑바닥에 그의 이상주의적 철학이 깔려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으며 베를린 대학을 본받아 설립된 각국의 모든 대학도 적어도 철학적인 학풍의 대학이었다.

칸트에 의하면 진정한 학문이란 '학문적인 관심에만 몰두하는' 철학이며 그러므로 철학(부)은 국가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실무가'인 성직자나 법률가·의사를 위한 '모든(학부의) 강의와 관련을 맺고'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지닌다. 이하 "학부의 싸움"의 주요 부분을 옮기며 이 논문 또한 뒤의 훔볼트의 글과 더불어 학문과 대학의 참된 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한다고 할 것이다.

철학부는 그가 행하는 강의에 관해 그 진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하며 그와 동시에 이성의 입법(立法)에만 따라야 한다. 정부의 법령에의 복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신학·법학·의학의)상급 세 학부와의 관련에서 철학부는 그것들을 통제하고 그림으로써 유용(有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의 본질이요 제1의 조건인 진리야말로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세 상급 학부가 정부를 위해 약속한 유용성이란 두 번째의 지위를 감수하여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 철학부는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역사적 지식(역사, 지리학(地誌學), 어학, 인문학)에 관한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순수 이성의 인식(순수 수학, 순수 철학, 자연 및 도덕에 관한 형이상학)이다. 이 두 부문은 상호 보강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철학부의 영역은 인간 지식의 모든 분야에 걸친다. 철학부는 모든 것을 즉 상급 학부의 영역까지도 검증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오직 학문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철학부는 그러므로 모든 강의에 관여함을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강의의 진리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철학부는 그 본래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급 학부는 철학부가 공적으로 제기한 이의나 의문에 성의를 다해 답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급 학부의 실무자들(성직자·법률가·의사)은 감히 철학자의 역할을 허용받지 못할 것이다. 철학부가 침해받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출신자들도 차차 진리의 궤도에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학술적 지식의 전당의 최우파인 상급 학부라는 계급은 정부의 규정을 변호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나, 한편 진리를 문제삼는 자유로운 헌법에서는 그 반대파(좌파)인 철학부의 의식의 존재가 보장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철학부의 엄격한 검증과 반론이 없다면 정부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며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현재는 제일 밑에 있는 철학부가 상급 학부의 제1위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부가 권력을 지녀서가 아니라 권력을 지닌 정부에 조언하는 데서 온다. 철학부의 자유와 그로부터 유래되는 동찰이아말로 정부 자체의 절대적인 권력보다도 훨씬 더 그 목적을 이를 수단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9. 베를린 대학의 이념 - '학문의 자유'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베를린 대학은 대(對)나폴레옹 전쟁(1806)의 패배 뒤 일어난 프로이센 국가 개혁의 일환으로서 창립되었다. 교육과 학문 연구의 쇄신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받아들여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국가는 물리적 힘에서 상실된 것을 정신적인 힘으로써 보충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새로운 대학 창립의 구상은 당시 베를린에 모여 있었던 피히테, 셸링, 슈라이어마허 및 빌헬름 훔볼트 등의 이상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훔볼트가 공교육국 장관에 취임하면서 베를린 대학은 그 창건이 구체화되었다. 훔볼트는 신분 중심의, 신분에 의해 차별화된 지난날의 봉건적인 교육 사상과 직업적인 '유용성'을 앞세우는 18세기 계몽주의적 교육 사조를 다 함께 거부하고, '모든 계층과 계급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인간 교양을 강조하였다.

베를린 대학은 훔볼트 대학으로도 불리운다. 그것은 훔볼트가 실질적인 창립자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베를린 대학을 특징짓는 지도이념과 학풍 즉 '학문의 자유die akademische Freiheit', '학문과 교양의 일치' 그리고, 권력이나 일상성으로부터 해방된 학문 연구를 위한 대학인의 원리가 '고독과 자유'라는 바로 훔볼트가 바라고 지향한 대학의 정신이었다는 연유에서이다. 이러한 그의 바람은 베를린 대학이 세워지기 직전에 발표된 그의 논문 "베를린 고등학문 기관의 내외적인 조직의 이념"(1810)에 잘 나타난 바, 아래에 옮긴 것은 그 논문의 머리 부분으로서 훔볼트의 대학관의 핵심을 이룬다. 이 훔볼트 이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베를린 대학을 본받은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 대학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베를린 고등학문 기관의 내외적인 조직의 이념"(1810)

고등학문 기관(대학을 말함—역자 주)의 개념은 국민의 도덕적인 문화를 위해 직접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결집되는 산봉우리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대학은, 가장 심오하고 넓은 의미의 학문을 연구하고 그와 더불어 학문을 정신적 윤리적인 교양을 위해 특별히 갖추어진 소재가 아닌, 스스로 함목적적인 소재로서 활용하도록 현신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본질은 내면적으로는 객관적인 학문과 주관적인 교양의 결합이요, 외면적으로는 수업과 연구를 일관하여 고유한 지도 밑에 결합하거나 혹은 오히려 수업에서부터 연구에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관점은 학문에 있다. 왜냐하면 학문이 순수한 모습으로 현존한다면 가령 약간의 일탈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올바르게 학습되기 때문이다.

대학이란 가능한 한 학문의 순수 이념과 맞섬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그 영역에서는 고독과 자유가 지배 원리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공동 작업에 의해 풍요해지므로, 단지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걸려진 것을 보충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한사람의 연구 활동이 다른 사람의 격려가 되고, 그에 더하여 모든 협동자들에게 저마다 발휘되는 학문의 빛은,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도출된 빛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비취주는 근원적 힘이 엿보이는 그러한 공동 작업에 의해 비로소 풍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내적 조직은 끊임없이 언제나 스스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비타산적인 공동 작업을 창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학이 아닌 일반 학교가 단지 기존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 데 대해 대학의 특징은 언제나 학문을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서, 그러므로 끊임 없이 연구 대상의 것으로 취급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그 이전의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르다. 즉, 대학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학문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들이 대학이라고 부르는 고등 학문 기관은 국가의 모든 테두리로부터 해방된 존재이다. 그것은 의관상으로는 한가하나

내면적으로는 학문과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적으로 정신적인 삶이다. 그러므로 혹자는 단독으로 파헤치고 수집하고, 혹자는 같은 연배의 인사들과 손을 잡고, 혹자는 젊은이들의 그룹을 모으고 있다. 국가는, (대학의) 그 자체 무정형적(無定形的)이며, 어느 정도 우연적인 활동을 하나의 한층 명확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이룩하고자 원할 경우에도, 대학의 그러한 위상을 소중히 하여야 한다.

국가는, 그 자체 본래 대학에 개입할 일도 없으며 개입할 수도 없음을, 국가가 대학에 간섭함은 대학을 바로 방해함을, 그리고 (대학에 관한 한) 국가 따위는 없는 편이 훨씬 유리함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국가는 직접 그리고 단적으로 국가의 이해에 관련된 것을 대학이나 아카데미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훔볼트의 정신을 창학 이념으로서 1810년 10월 10일 새 대학은 개교 식전을 거행하였다. 정교수 24명, 원외 교수 9명, 사강사(私講師)를 포함하여 기타 25명 그리고 학생은 256명이었으며 초대 총장에는 철학자 괴히테가 선출되었다.

대학 사상 최초의 학문 연구의 장으로서의 베를린 대학은 독일의 학문을 유럽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 후진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의 대학인들도 베를린을 탐방하고 그에 유학하였다. 그리고 학문과 교양의 일치 내지 학문을 통한 교양의 형성이라는 학풍은 관료와 교사, 법조인과 의사 등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전문직 지향의 '교양 시민 계층'을 창출, 그들은 독일 근대화의 중추적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베를린 대학, 특히 그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는 많은 찬탄이 바쳐졌다.

그러나 미숙한 독일 시민사회에서의 대학인만의 '대학의 자유' = '학문의 자유'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였다. 즉, 프로이센 개혁의 일환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세워진 베를린 대학은, 그 국가 개혁이 필경 1789

년의 시민 혁명을 외면한 만큼, 반시민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아니 새 대학 창립에 직접 참여한 이상주의 철학자들의 '빵을 위한 학문'에 대한 혐오와 '철학적인 두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대학을 비사회적이며 반현실적인 '학자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학문과 사회, 학자와 시민을 이율배반적 관계로 설정한 새 대학의 이념과 학풍은 개인의 자폐적 자기형성 내지 '내면성' 만에 급급한 '교양Bildung'의 독일적 관념과 결들여 대학은 열린 근대적 시민 사회의 확립이나 정치-사회적 '공공성 Öffentlichkeit'의 창출에 하등 기여하지 못하였다. 독일의 대학인이, 정치-사회적인 자유와 무관하고 유리된 '대학의 자유' = '학문의 자유' (이러한 용어는 영어권이나 불어권에는 없다.)의 허구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히틀러 체제에 이르러서였다. **이광주**

(참고문헌)

- S.E.Morison,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36*, 1964.
 H.Rosovsky, *The University--An Owners Manual*, 1991.
 H.C.Barnard, *Educa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1969.
 I.Kant, "Der Streit der Fakultäten", 1798.
 W.von Humboldt, "Über die innere und äusser Organis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Anstalten in Berlin", 1810.
 이광주, 『大學史』, 민음사, 1997.

이광주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전주대·인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인제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지식인과 권력』, 『유럽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